

심층면접 1

주 제 > 주어진 영상 텍스트를 보고 질문에 답하기

과 제 > '주어진 단편영화를 보고 질문에 답하기'

- 오전에 주어진 단편영화 관람 후, 오후 개별 심층면접 시 해당 영화의 다양한 구성요소에 대한 면접관들의 질문에 답하여야 함
(심층면접 시, 영화 관람 전후 본인이 작성한 메모를 참고할 수 있음)

□ 과제수행방법 및 유의사항

1. 과제수행순서 및 방식

- 1) 단편영화 1차 상영 <25분>
- 2) 개별 메모 작성 <30분>
- 3) 동일한 단편영화 2차 상영 <25분>
- 4) 개별 메모 추가 작성 <15분>
- 5) 개별 메모 수첩 제출

- 학교에서 지급한 수첩과 필기도구만을 사용하여 메모를 작성
- 메모 수첩은 일단 회수하였다가 개별 심층 면접 때 돌려받게 됨

(개별 시험이 종료된 후 귀가시 다시 반납)

2020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영상원 영화과 특별전형 <외국어성적우수자>

이야기 구성

수험번호		성명		감독관 확인	
------	--	----	--	--------	--

문제> 다음 주어진 조건들에 맞게 본인이 만들 장편극영화의 이야기를 구성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1,600자 이상 2,0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함)

- 조건 1) 이 영화의 주요 등장인물은 3명의 고등학생이며 이들은 친한 친구사이이다.
(주요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반드시 A, B, C로 표기할 것)
- 조건 2) 이 영화는 3명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결말로 마무리된다.
- 조건 3) 이 영화 속에서 3명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그들의 이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커다란 사건을 겪게 된다.

2020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영상원 영화과 일반전형 1차

글 쓰 기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	--	-----	--	--------	--

문제 1> 주어진 조건들에 맞게 문제에 답하시오.

조건 1) 1인칭 화자 '나' 는 과거에 취미였던 일이 현재 직업이 된 인물입니다.

'나' 의 시점에서 자서전적인 방식으로 답안을 기술하시오.

('나' 는 수험생 본인이 아니라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공의 인물임)

(인물의 이름은 반드시 A, B, C...로 표기할 것)

조건 2) 답안에는 다음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함.

가. '나' 의 과거의 취미와 현재의 직업

(단, 영화 및 영상, 게임,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은 제외)

나. '내' 가 취미를 직업으로 삼기로 결심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 (사건, 인물 등)

다. 이후 해당 직업을 갖기까지 '나' 의 편력 (핵심 경험 중심으로 시간 순으로 기술)

(원고지 800자 이상 1,000자 이내로 작성할 것. 띄어쓰기 및 마침표 포함.) <60점>

문제 2> '문제 1' 에서 '내' 가 택한 현재의 직업은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 무인화 등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사라질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에 대비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 지 수험생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원고지 400자 이상 600자 이내로 작성할 것. 띄어쓰기 및 마침표 포함.) <40점>

글 쓰기 시험

수험번호		이름		감독관 확인	
------	--	----	--	--------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인(仁)은 자기 한 몸을 넘어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키는데 작용하는 덕이다. 즉 타인에게로 퍼져가는 나의 관심과 사랑이다. 맹자는 측은지심(惻隱之心) 혹은 불인지심(不忍之心)이 인의 단서라고 말한다. 측은지심이라고 하거나 불인지심이라고 하거나 의미는 타인의 불행을 남의 일 같지 않게 느끼는 마음이다. 즉 동정심이다. 맹자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잇는 마음, 현대어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할 그 마음이 바로 동정심이라고 생각했다. 동정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는 내 안에만 갇히지 않고 타인의 느낌을 공감하며, 그럼으로써 나를 보살피고 내 가족을 보살피듯이 타인을 보살핀다.

맹자는 한편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인이라고 말한다. 또 맹자는 "군자는 사물에 대해서는 아끼기는 하지만 인(仁)으로 대하지는 않고, 백성에 대해서는 인으로 대하지만 친애하지는 않는다."는 말도 한다. 이 구절은 부모에 대한 애정과 백성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 밖의 동물이나 무생물에 대한 애정의 강도가 다르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모에 대한 사랑을 능가할 것은 없다. 맹자는 아버지, 또는 혈육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친애[親]'를 사랑의 근본이자 출발점으로 삼은 것 같다.

측은지심이 남의 불행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이므로, 그 함께 느끼는 능력은 공간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즉 자신의 부모를 가장 사랑할 것이며 집안의 친척어른은 그보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사랑할 것이며 동네 어른은 그보다 더 얹은 마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 사랑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 점점 사랑이 넓어지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사랑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도 없게 된다. 그 관심과 사랑을 통해 나의 존재가 확대되는 것이라면 나의 존재는 이 세상 전체로 확대된다. 절실함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존재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느낀다. 그 과정을 맹자는 "동정심을 느끼는 마음을 느끼지 않는 부분까지 이르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출전: [네이버 지식백과] 측은지심과 인 (맹자 『맹자』 (해제), 2004., 이혜경) (일부 편집)

문제> 아래 주어진 조건에 맞춰 <내가 측은지심을 느꼈던 순간>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구성하시오.

<조건>

1. '나'를 주인공으로 한 일인칭 시점의 이야기를 담은 글로서, 논리와 사변에 치우친 글이 되지 않도록 할 것.
2. 본인의 직접 또는 간접 경험에 픽션을 적절히 배합하되, 누군가의 체험담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실감나게 쓸 것.
3. '내'가 측은지심을 느낀 대상의 이름을 'A'라 하고, '나'의 행동에 대하여 'A'가 어떤 감정적 또는 정서적 반응을 보였는지를 반드시 내용에 포함시킬 것.

(원고지 1,200자 이상 1,500자 이내로 작성할 것. 띄어쓰기 및 마침표 포함.) <100점>

2020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영상원 방송영상과 2차

논술

수험번호	성명	감독관 확인
------	----	--------

1. 다음은 영화 ‘별새’를 만든 김보라 감독이 <시사인>과 한 인터뷰 “내 상처에 언어가 생긴 것 같다” 중 인상적인 대목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5점)

유년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 녹음하고 메모하고 집요하게 기억을 채집했다고 하던데?

감사 노트, 꿈 일기 등 많은 종류의 노트가 있었다. 애도 일기라고 쓰인 노트에는 애도할 것들만 적었다. 나의 역사, 나의 서사에 집중해 탐구하는 시간이 있었다. 20대 중반 명상 모임에서 부모의 장단점과 그로부터 물려받은 것, 부모를 싫어하면서도 부모와 닮은 점, 10대부터 20대까지 큰 사건을 정리했다. 자기 삶의 전문가가 된다는 마음으로 적었다. 내 삶의 전문가가 되면 결국 남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게 있더라. 우리는 결국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 1) 위 감독의 답변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나가야 할 태도와 사유는 무엇인지 자신의 체험을 중심으로 적어보시오.
- 2) 각자에게는 의식적으로 떠오르는, 혹은 어느 예상치 못한 순간 무의식적으로 귀환하는 유년 시절의 기억들이 있다. 당신이 개인의 서사로부터 시작하지만 혹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까지도 주게 될지 모르는, 당신이 일기장에 적어두었거나 그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일기로 적어놓아야 할 이야기는 없는가?

2. 당신은 어제 밤 강남구 청담동의 이면도로를 걷고 있었다. 서둘러 전철역으로 향해 가던 중 어디선가 트로트 노래자락이 들려와 그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으스스한 빌딩의 화단에 걸터앉아 야구 모자를 쓴 누군가가 <봄날은 간다>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앓된 얼굴과 옷차림을 보니 고등학교 2학년쯤 되어보였다. 그 녀석은 울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했지만 개의치 않고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대고 있었다.

무심코 지나친 당신은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까 마주친 풍경이 자꾸만 떠올랐다. 어둠 속에 잠긴 그 녀석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래서 당신은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 녀석은 어떤 사람일까? 어울리지 않게 왜 하필 <봄날은 간다>를 부르고 있었을까?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사람들은 도대체, 인생의 어떤 순간이 찾아오면 길거리에 앉아서 노래를 토해내는지 되짚어 보았다. 그 추리와 상상의 내용을 서술하시오.(25점)

참고 1.

<봄날은 간다>

작사 손로원 / 작곡 박시춘 / 노래 백설희
1954년 발표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웃고름 씹어가며
산 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리가더라
오늘도 꽃 편지 내던지며
청노새 짚랑대는 역마차 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참고 2.

- * 그 학생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건강히 살아계시고 트로트를 좋아하지 않는다.
- * 상상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당신이 마주친 특이한 풍경이 설득력 있게 이해되면 가점이 있다.
- * 고등학생의 사연과 그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에서 재치와 유머가 느껴진다면 가점 사항이다.

3. 2019년 11월 21일 경향신문 1면은 파격이었다.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는 짧은 문장과 함께 한 면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주요 5대 사고로 사망한 1200명 노동자의 이름만으로 채웠다. “NOO(32·갈림/뒤집힘) 윤OO(54·떨어짐) OOO(40·떨어짐)...”사회적 반향이 뜨거웠다.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편한 진실이 상기되는 순간이었다. 하루 평균 2.47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난다. 이 기획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은 왜 이런 현실을 제대로 보도하거나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2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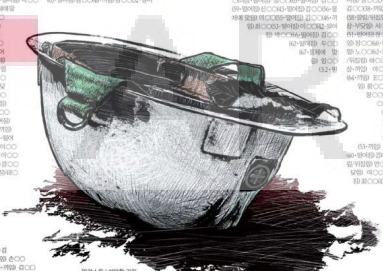
경향신문

주요기사 080-023-6282
1946년 10월 6일 창간 제3931호 4면 kyunghyang.com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NOO(32·갈림/뒤집힘) 윤OO(54·떨어짐) OOO(40·떨어짐)...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주요 5대 사고로 사망한 1200명 노동자의 이름만으로 채웠다
“NOO(32·갈림/뒤집힘) 윤OO(54·떨어짐) OOO(40·떨어짐)...”사회적 반향이 뜨거웠다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편한 진실이 상기되는 순간이었다
하루 평균 2.47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난다
이 기획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은 왜 이런 현실을 제대로 보도하거나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주요 5대 사고로 사망한 1200명 노동자의 이름만으로 채웠다
“NOO(32·갈림/뒤집힘) 윤OO(54·떨어짐) OOO(40·떨어짐)...”사회적 반향이 뜨거웠다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편한 진실이 상기되는 순간이었다
하루 평균 2.47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난다
이 기획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은 왜 이런 현실을 제대로 보도하거나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주요 5대 사고로 사망한 1200명 노동자의 이름만으로 채웠다
“NOO(32·갈림/뒤집힘) 윤OO(54·떨어짐) OOO(40·떨어짐)...”사회적 반향이 뜨거웠다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편한 진실이 상기되는 순간이었다
하루 평균 2.47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난다
이 기획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은 왜 이런 현실을 제대로 보도하거나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



4. 다음은 올해 화제가 된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의 이미지다.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이 드라마는 벨라루스 출신의 저널리스트/작가로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독특한 증언 소설 <체르노빌의 목소리>와 많이 겹친다.



그녀는 자신과의 독백 인터뷰에서 “기록되지 않은 역사, 그리고 체르노빌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회의를 갖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나는 체르노빌의 증인이다. 무서운 전쟁과 혁명이 20세기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체르노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20년이나 흘렀지만, 내가 증언하는 것이 과거인지, 또는 미래인지, 나는 아직도 나 자신에게 묻고 있다. 그 사건은 너무나도 쉽게 진부한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시시한 공포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체르노빌을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본다. 체르노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선지식이다. (중략) 운명은 한 사람의 인생이고, 역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다. 나는 운명을 보존하면서 역사를 들려주고 싶다. 한 사람을 잃지 않도록……. 체르노빌에서는 ‘모든 것 후’의 삶이 더 기억에 남는다. 사람 없는 물건, 사람 없는 풍경……. 목적지 없는 길, 목적지 없는 전선……. 또 생각해 보면, 이것은 과거일까, 미래일까? 가끔 내가 미래를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시차를 두고 만들어진 텍스트들로부터 뭔가 메시지를 얻어낸다면,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역사 기억과 관련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새롭게 해 볼 수 있을까?(25점)

전 공 실 기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	--	-----	--	--------	--

[문제]

주어진 글이 묘사하는 장면을 들려준 음악의 느낌을 반영하여 그림으로 표현하시오.
(단, 밑줄 친 부분들은 반드시 포함하여 그릴 것)

나는 낡은 빌라의 테라스에 말려야 할 셔츠를 널었다. 빌라는 흰색이었다. 안개에 감싸여 빌라는 하얀 난간 위로 확장되는 듯 보였다. 나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해가 뜨느라 피어오른 안개가 이미 카르타고의 항구를 침범하고 있었다.

왼쪽에 있는, 이슬람교도 거주지도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나비 떼의 습격이 있었다.

바다는 거품 한 점 없이 매끄럽고, 몹시 반짝였으며, 눈부시게 빛났다. 파도는 하나같이 일어나서 전진하는 커다란 황금빛 기와처럼 보였다.

2020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영상원 멀티미디어영상과 2차

글 쓰 기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	--	-----	--	--------	--

어느 날 나(수험생 본인)는 택배 상자 하나를 받는다. 그로 인해 나의 삶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상자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낸 사람은 누구이고 왜 나에게 보낸 것인지 그로 인해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어진 답안지 1장 내외로 기술하시오.

K'ARTS

2020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영상원 멀티미디어영상과 2차

전 공 실 기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	--	-----	--	--------	--

글쓰기 시험에서 기술한 자신의 변화된 삶을 그리시오.

K' ARTS

전 공 실 기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	--	-----	--	--------	--

인류사의 어떤 시기(과거, 현재, 미래), 어떤 지역, 어떤 집단에서 어떤 이유로든 말이 사라진 사회를 상상하고 그 시기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소통하며 살아갔을 지를 칸만화 형식으로 표현하시오.

조건>

1. 칸은 자유롭게 사용하시오.
2. 글(내레이션, 대사, 의성어, 의태어 포함) 없이 그림만으로 7쪽 이상 표현하시오.
3. 작품과 별도로 2쪽은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작성하시오.
4. 본인의 이름, 출신학교 등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표기 시 불합격 처리함.

평가기준>

조형성, 주제와의 적합성, 스토리 구성 그리고 글쓰기를 중점으로 평가함.

2020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영상원 애니메이션과 일반전형 2차

전 공 실 기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	--	-----	--	--------	--

문제>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스토리를 구성하되 사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미지와 느낌을 반드시 포함시켜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시오. 그리고 뒷장에 본인이 구상한 대략적인 스토리 콘셉트를 글로 쓰시오.

주의사항>

본인의 이름 또는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표기 시 불합격 처리됨

2020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영상원 영상이론과 2차

논술

수험번호		성명		감독관 확인	
------	--	----	--	--------	--

[문제 1] 아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40점)

이 영화는 『컨택트』 (드뇌 빌뇌브, 2017)이다.

(질문 1) 이 영화의 장르인 SF에 대해 아는 바를 기술하고, 장르적 특성으로 영화를 분석하십시오.

(질문 2) “자유 의지”와 “운명”은 이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질문 3) 언어와 시간의 상관관계를 영화는 어떻게 포착하고 있는가?

[문제 2] 아래의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30점)

<지문>

Genres are of special significance. Genres (of literature and speech) throughout the centuries of their life accumulate forms of seeing and interpreting particular aspects of the world. For the writer-craftsman the genre serves as an external template, but the great artist awakens the semantic possibilities that lie within it. Shakespeare took advantage of and included in his works immense treasures of potential meaning that could not be fully revealed or recognized in his epoch. The author himself and his contemporaries see, recognize, and evaluate primarily that which is close to their own day. The author is a captive of his epoch, of his own present. Subsequent times liberate him from this captivity, and literary scholarship is called upon to assist in this liberation.

It certainly does not follow from what we have said that the writer's own epoch can somehow be ignored, that his creativity can be cast back into the past or projected into the future. One's own present retains all of its immense and, in many respects, decisive significance. Scholarly analysis can proceed only from it and must always refer to it in its subsequent development. A work of literature, as we said above, is revealed primarily in the differentiated unity of the culture of the epoch in which it was created, but it cannot be closed off in this epoch: its fullness is revealed only in *great time*.

(질문) <지문>을 번역하십시오

[문제3] 아래의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30점)

<지문>

The notion - that a recourse to images connotes a move towards imprecision and poetic function of discourse - can be counterposed to the common-sense position that the prime virtue of images is that they 'refer' more accurately. Many of the more assiduous documentary film-makers have become aware of this contradiction, complaining that it is impossible to shoot slums and misery without somehow aestheticising them - a paradox generated by the widely held but nevertheless false premise that images represent more 'accurately' than other forms of representation, and that the choice is between imprecise (poetic) 'pictorialism' and precise, referential 'photography of record'. Whereas captions and titles fix levels of reading, images move backwards through language, in an attempt to elude the strictures of resistance, reinforcing the misconception that while 'verbal discourse' is oppressive and authoritarian, images 'speak for themselves' and are more democratic, thus less socially and ideologically determined. Such a belief ignores that full extent of the role of language in helping to determine firstly, what image shall be produced; secondly, the material(s) organized in/by it; thirdly, the social function and placing of imaged discourse in a given discursive formation; and fourthly, the readings produced in relation to it.

*Recourse : 의지, 기댐

*Counterpose : 대조하다

*Assiduous : 부지런한

*Discursive Formation : 담론 구성체 = Ideological Instance of the Social Formation

(질문 1) 위 지문을 최대한 정확하게 번역하십시오.

(질문 2) 본인이 최근 보았던 영화 중에서 이 주장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영화를 선정하여, 영화의 제목과 줄거리, 주요 장면들과 주요 대사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미지와 언어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 사회적 함의에 대해 비평하십시오.